광주 고교 배정 어떻게 했길래…

형평 맞추려다… 학생 선택권 묵살

장 교육감 보완 지시

"신창중(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3학년 아이인데 전대사대부고(용봉동)로 배정됐습니다. 1, 2지망 쓰지 않았고, 등·하교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입니다. 버스도 한 번에 가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야할 지 미치겠습니다. 학업 시간도 빠듯한 아이들이 통학에 2시간 이상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학부모에게서 기자에게 온 이메일 내용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강제배정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중3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반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 박탈에 따른 항의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1·2지망 고교 배정에 배제된 중학교는 학부모들의 원성으로 시달리고, 특정 중학교 출신이 무더기 배정된 고등학교는 학습분위기 쇄신 기회를 놓쳤다며 한숨 지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고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무더기 강제배정 왜?=고교 배정에 '성적'이라는 변수를 추가하면서 강제배정이 크게 늘어났다. 기존에는 ▲지망 학교와 ▲근거리 원칙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새롭게 ▲성적을 추가하면서 변수가 늘어 그만큼 충족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100명이 정원인 A고교에 1지망으로 200명이 지원했다면, 기존에는 이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00명은 2지망으로 돌려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00명의 성적을 분류해 1등급 4%, 2등급 7% 등 등급별로 인원을 한정했다. 그만큼 탈락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근거리 원칙도 출신 중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권역으로 나눠 무작위 배치했다. 중학교 항목이 없이 권역으로 무작위 추첨하다보니 대성여중의 경우 가장 가깝지만 대성여고로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지학교와 자율형사립고가 올해 일반고 전환되면서 이들 학교를 기피하다보니 550~600명 정도의 강제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공립고 기피 현상을 인위적으로 해소하고자 무리하게 성적을 추가하면서 벌어진 예견된 사태라고 질타했다.

◇"구제방안 마련해야"=강제 배정된 학생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우선 강제배정된 학생들이 학생 상호간 배정된 학교를 1대 1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원학교 쏠림·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단일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는 학구 조정 검토와 성적 기준을 5등급이 아닌 3등급 수준으로 완화할 것도 제시했다.

장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범행동기 밝힐게, 여친 불러줘"

뻔뻔한 전주 일가족 살해범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둘째 아들 박모(25)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 덕진 경찰 관계자는 4일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 현재 정확한 동기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밥도 잘 먹고 있으며 유치장 동기들과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여자친구와 단둘이 만나게 해주면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면서 자신의 지능을 자랑했고, 한 질문에 5분간 골똘히 생각한 뒤 말해 경찰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지인들도 박씨가 머리 회전이 빠르며 대인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아 불행했다"며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둘러대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박씨 부모 명의의 재산 상태와 보험 가입,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최근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려고 원룸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30일 새벽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나우뉴 참 〈8747〉 김종두

의료계 "처방대가 뒷돈 근절"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 수백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뒷돈 근절'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목포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경찰, 결국 불구속 수사

檢, 사전영장 신청 수용 안해

경찰이 '현직 의사 친동생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의사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요구했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의견은 검찰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중인 목포 모 병원 의사 A(47)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맞서고 피해자의 행동이 납득가지 않으며 구속할만한 충분한 범죄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불구속 수사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경찰은 두 차례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검찰은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각 당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3 징병검사 시작

4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병무청은 9월까지 2만4700여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택배차량서 담배 2갑 슬쩍

쌍나팔

○…정차 중인 택배차량에서 운전사가 잠시 문을 열어두고 배달하러간 틈을 타 차안에 있던 담배 2갑을 훔친 60대 할아버지가 경찰서행.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8)씨는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 호남동 도로상에 배달을 위해 잠시 주차해둔 임모(36)씨의 택배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훔쳐 달아나다가 임씨에게 붙잡혔다는 것.

○…택배운전사 임씨는 "비록 피해액수가 적지만 박씨가 이전에도 이런 짓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형마트 휴게실에 버려진 신생아

생후 1주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대형마트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께 서구 화정동의 한 대형마트 유아휴게실에 태어난 지 1주일쯤 지난 것으로 보이는 여아가 버려진 것을 직원이 발견, 경찰과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배꼽에 탯줄이 달려있는 이 영아는 건강상 이상이 없이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여아는 옷 3벌, 분유 등 신생아 용품과 친모로 보이는 여성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편지에는 "미혼모고 힘들다"는 말과 함께 "우리 예쁜 딸 잘 키워달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트 직원들은 아이를 목욕시키고 분유를 먹이는 등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보살폈다.

이 여아는 현재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대형마트의 CCTV를 확보해 아이가 버려지기 6시간여 전부터 아이를 안고 마트 내부를 배회하는여성의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미혼모인 이 여성이 오랜 시간 주저하다 결국 여아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여성의 신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

스마트폰 밀수출 中 유학생

광주 남부경찰은 4일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장물 취득 등)로 중국인 유학생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한국의 판매책이 공급한 도난·분실 스마트폰 75대를 대당 5만~10만 원에 산 뒤 중국에 밀수출하는 등 지난 1월까지 휴대전화 200여 대를 같은 방법으로 매입해 1억 7천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중국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분실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국내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국 최다 PC방 게임 배급업체
100억대 사이버머니 불법 환전

전국 최다 PC방 가맹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온라인게임 배급업체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온라인게임 회원들의 판돈(쿠폰 판매수입)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중국내 환전상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게임업체 A사 간부 황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45)씨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지난 2011년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사행성 온라인게임용 사이트를 개설한 A사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PC방 가맹점 수를 600여곳, 회원 수를 10만명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늘렸다.

/연합뉴스